

국민1인의 평생진료비는 평균 7,734만원



이 한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시지서 행정지원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의료비가 평균 7,700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2006년을 기준으로 생애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이며, 평균 수명을 80세로 했을 때 출생에서 사망시까지 총 의료비는 국민 1인당 7,734만원으로 추정된다는 통계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금액과 법정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인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평생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

금액은 4,973만원, 환자 본인의 부담액은 2,761만원(법정 본인부담금 1,694만원,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1,067만원)으로 분석했다.

연령별 의료비 지출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10세 664만원(누적의료비 664만원) △11~20세 236만원(900만원) △21~30세 329만원(1,229만원) △41~50세 637만원(2,283만원) △51~60세 1,126만원(3,409만원) △61~70세 1,903만원(5,312만원) △71~80세 2,422만원(7,734만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의료비통계센터 주원석 파트장은 "우리나라 사람은 64~80세에 평생 쓰는 총 의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3,826만원(49.5%)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흡연 및 음주 등 무절제한 생활 습관이 노년에 불려오는 불치병인 암과 같은 진료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 2007년도 신규 암환자 등록수가 18만명을 초과 하였다는 통계에서도 보여주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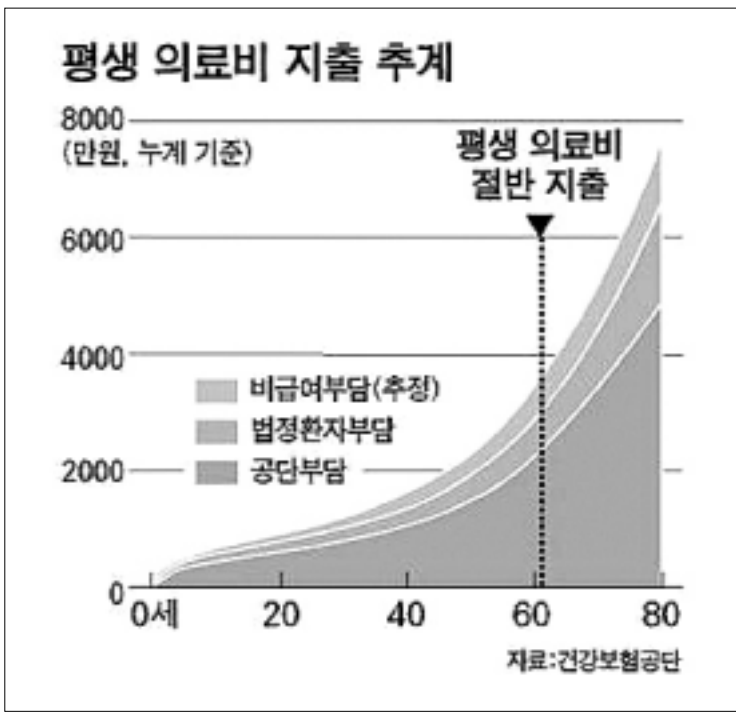
인 것이다.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도 50세 이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요양기관(약국 포함) 방문 일수는 80세까지 2,509일(약 6년10개월)이었으며, 이 중 57세까지의 요양기관 방문일수가 1,250일로 절반을 차지했다. 57세 이후 23년간 그동안 이용했던 것만큼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노년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나이가 들면서 의료기관 이용 횟수와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0~10세 422일(누적방문일 422일) △11~20세 116일(538일) △21~30세 128일(666일) △31~40세 161일(827일) △41~50세 217일(1,044일) △51~60세 334일(1,378일) △61~70세 516일(1,894일) △71~80세 615일(2,509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 포천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중의



한 곳으로 노년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의 부담은 물론 개인의 의료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며 이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로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없

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을 충실히 수검하고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회단상

최후의 웃는 자

영국 격언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1주일만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만 행복하려면 말(馬)을 사라. 일 년 좀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것은 물론 유머에 속하거나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나 이 격언이 말하려는 뜻은 분명하다. 흔히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 정말 행복해지는 조건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대표적인 덕(德)으로 정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를 보면서 진실과 정직은 용기의 사람을 만든다.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만들어 가는 행태는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믿어주는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번 재미 봤으면 족하지 두 번 재미 두 번 속을 국민은 아니다.

나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도 마지막 승부는 정직에 달려있음을 충분히 긍정할 수 있다. 재간(才幹)은 많이 없고 머리는 그다지 우수하지 못해도 정직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긴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이 있다. 걸 닦기, 걸치레, 번지레함, 탈속의 신사, 과장, 실속 없는 자



김 창 성
내촌교회 목사

기 표현, 혀 끝에서 뱀도는 달변(達辯), 과잉 광고 등은 불원간 드러나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의 수렁으로 몰아 넣는다.

속임수는 며칠은 가지 못 단년은 갈 수 없다. 그러나 정직은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이긴다. 웃는다.

정직은 사람과도 통한다 내가 아내에게 혹은 친구에게 얼마만큼 정직한가는 자신이 알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사람은 그 정직만큼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정직은 신앙(信仰)과 통한다.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한가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척도(尺度)가 된다. 신(神)은 우선 육안(肉眼)에 안보이기 때문에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신에게 정직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권면하신다. 야고보서 1장22절 "너희는 도(道)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신다.

문의) 031-532-2489

통일 한국에서 구재산권의 처리는 북한 내에 시장경제 체제의 신속한 도입, 대북 투자 장애 요인 제거, 북한 주민의 토지 이용권 보호 및 생활 안정 확보 등 거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만 한다. 침해 토지 처리 문제도 역시 이 같은 방향에서 연구·모색되어야만 한다고 볼 때, 통일 한국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재국유화 원칙이다.

재국유화 원칙은 통일 즉시 과거 북한 정권에 의해 불법적으로 몰수된 토지에 대한 구소유권을 무효화하고 북한 내의 모든 재산을 한시적으로 재국유화한 후, 서서히 매각 처리하여 사유화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재국유화 원칙의 기저에는 통일 이전 북한 정권의 소유로 되어 있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통일 한국 정부의 소유권으로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소유권 제도와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북한 국유 재산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안과 관련하여 재국유화된 북한 지역 토지의 소유·관리·매각·처분 등을 담당하는 독일의 신탁관리청과 유사한 특별관청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

이 원칙에 의하면 원소유자에게 구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인정하지는 않고 다만 해당 토지의 매각 처분시 원소유자에게 우선 매입권을 인정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일 당시 직접 토지를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토지 이용권의 보호적 차원에서 신중할 자제가 요망된다. 이 원칙은 침해 토지의 관리를 특별관청인 국가기관에 의하게 함으로써 북한 토지를 일정한 기간 종합적으로 중앙 관리한 후 적절한 시기에 이를 매각하여 사유화를 추진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토지 반환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투자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북한 지역에서의 투자 촉진을 통한 조속한 경제 성장,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보상 재원 마련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회피 등을 해결할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재국유화 원칙



서 의 석
대통령직속 통일안보위원회
대표이사

수 있다. 또 통일 한국이 북한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지 이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및 기업과 개인의 대북 투자는 부동산 투기, 특히 토지 투기 과열 현상이 따를 것이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바 재국유화 원칙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북한 지역의 신속한 경제 재건을 통해 경제 통합을 이룩하며 동시에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감안한다면, 재국유화 방안은 간명한 처리 방법인 동시에 매우 효율적인 대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국유화 방안을 따를 경우 통일 즉시 구소유권을 전면

적으로 무효화하고 통일 정부에서 재국유화할 경우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정면 배치됨으로써 위헌 논란의 소지가 야기될 수 있고 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원소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원소유권자들은 한국 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원소유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원소유자에 대한 구소유권 반환 거부를 정당화하기란 법리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통일 이전에 소유하던 국·공유 토지를 통일 한국이 그대로 인수·재국유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통일 이전 도시 지역은 기존에 불균등한 부동산 점유 실태가 있었고, 농촌 지역은 개별적 입지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으며, 토지 소유 형태가 협동농장, 국영농장 등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해 온 협동단체의 소유 토지까지 통일 한국이 접수내지 국유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 원칙은 북한 정권이 과거 행한 불법적 전횡적으로 토지를 국유화한 조처를 불문에 부친다는 점에서 반법적 국가적 행위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겨울철 화재발생 안전대책 추진

포천소방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 간담회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12월 14일 오전11시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포천시청 및 포천교육청을 비롯하여 8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2개, NGO 2명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화재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토대로 화재취약 요인을 도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소방서 관계자의 200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내용 설명 및 협조사항 당부와 대형화재 및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NGO 외의 유기적인 대응체제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실시로 예방중심의 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 및 조성되어 모두가 대형화재 없이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포천소방서는 12월14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스파게티 전문점! 후오레

대표 김찬미
찾아오시는길

메뉴
 ▶ 크림 베이스 ▶ 애플 크림 스파게티, 까르보나 크림 스파게티, 그린 녹차 스파게티
 ▶ 브라운 소스 베이스 ▶ 콤비네이션 스파게티, 치킨 스파게티(자연 베이스) 콩글레 스파게티
 ▶ 주유리 ▶ 안심 스테이크 워오레 정식, 김밥 스테이크, 돈까스, 피자 치즈 돈까스

돈까스와 오모리야스, 생선까스, 낙지 볶음밥, 치즈 감자 그라탱, 김치 볶음밥, 어린이 미키미우스 애플 볶음밥(소금) (약주) (생맥주)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5-17 | Tel. 031)544-3939 HP 017-292-5543

대한민국 관혼상제 문화의 중심

(주) 렌탈클럽 이지스 상조

갑자기 닥칠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사,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지스 상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지스 상조회원이 되십시오. 회원이 되신후 전화 한통화(☎1566-1024)로 언제든지 이용가능합니다.

임상빈
경기북부본부장

상품금액	월부금액	불입횟수(기간)	이용가능한 행사
240만원	2만원	120회	둘/백일/결혼/칠순/팔순/장례
360만원	3만원	120회	
480만원	4만원	120회	

Aegis Group 이지스 상조
Tel. 031-536-0338 Fax. 031-536-3898 HP. 011-266-2682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추억이-에서
시간과 여유를
김치찌개 음미하는...

Just Blues

메뉴
호프(생맥주) 카프리 스타우트 밀러 바드와이저 아이네켄 코로나
Coffee 녹차

50-80년대
올드팝록메트로폴리스
"100인치 대형화면"
스포츠중계

Just Blues
T. 544-4111
대표 이규연